

전남 지역 최초 사찰 유리도가니 출토

장흥 천관사 발굴조사결과...고려시대 높은 위상 반증

장흥 천관사(주지 지행) 유적발굴에서 전남지역 최초의 유리 도가니가 출토됐다. 장흥군은 8월 19일 민족문화유산연구원에서 6월부터 9월까지 발굴조사 결과 유구 승방지를 비롯하여 건물지 5동과, 석열 2기, 추정 탐지 등이 확인되었다. 건물지 4동과 석열 2기, 추정 탐지의 조성시기는 조선시대, 건물지 1동의 조성시기는 고려~조선시대로 유구로 확인됐다.

장흥군 관산을 농안리 천관산의 북쪽 자락에 위치한 천관사는 정확한 창건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남북국시대(신라) 애장왕(800~808년) 때에 영통화상(通童和尚)이 창건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는 경내에 있는 삼층석탑(보물 제795호)과 석등(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34호)이 시기의 양식을 갖추고 있어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출토유물 중 유리도가니를 비롯해 기와와 청자, 분청사, 백자 등이 확인됐다. 전남지역에서는 나주 복암리 유적에서 동(銅) 도가니가 출토된 바 있으나 유리 도가니는 최초다.

천관사 출토 유리도가니는 원통형의 몸체에 둥근 바닥을 갖춘 형태로 8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창건 당시 왕실을 비롯한 청해진 등과 연계된 천관사의 사세를 반영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물지에서 출토된 소조 나한상은 조각 수법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천관산 지역 불교 조각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경내에서 수습한 청자퇴화분(馬)은 천관사가 천관산에서 거행하였던 국가 제사

8세기 청해진 등 연관 왕실사찰

18세기 실학서에 대가람 구전

천관사, 유구 및 문화재 전시 계획

와 밀접하게 연관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으며, 이전의 시·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청자향로와 청자음각당조분기와 등과 함께 고려시대 천관사의 위상이 매우 높았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천관사 주지 지행 스님은 "천관사는 18세기 실학자 존재 위백구 선생이 쓴 글에 '48전각 89암자가 있다'는 말처럼 크게 융성했던 가람으로 발굴사업을 통해 그 형태



장흥 천관사 발굴조사 현장 전경과 출토된 유리도가니모습(우측 하단)

를 파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향후 협의를 통해 반출된 유구와 문화재들을 전시공간을 마련해 일반인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발굴조사는 2011년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조사로, 천관사의 규모와 가람 배치 등의 성격을 밝히고 향후 체계적인 정비 복원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함과 동시에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장흥군의

의뢰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민족문화유산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장흥군은 특히 조사 결과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었으나 조사 면적의 한계로 전체적인 성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연차 실시하는 조사로, 천관사의 규모와 가람 배치 등의 성격을 밝히고 향후 체계적인 정비 복원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함과 동시에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장흥군의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불교회관, 백혈병 환우 돕기 나서

난치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젊은 환우를 위해 불자들이 발벗고 나섰다.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원감 보룡)는 전북불교회관 법우인 김경오 불자(20세)가 난치병인 백혈병으로 1년 넘게 투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요법회 회원들과 함께 즉석 모금운동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해 지난 8월 6일 가족에게 전달했다.

전북불교회관은 일요법회 불전함의 보시금 80만원 전액을 김경오군의 어머니 송민숙 보살에게 전달했다. 지구촌 공생회 전북지부도 소식을 듣고 치료비 20만 원을 보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형과 함께 살고 있는 김경오 군은 고3때인 지난해 백혈병이

발병해 학업도 포기하고 익산의 한 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치료를 받는 중에도 일요법회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참석해 쾌유를 기원해왔다. 김경오 불자의 가족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매월 공양미 20kg을 보시해오고 있다.

이영배 전북불교회관 과장은 "작은 정성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하루속히 완쾌돼 건강한 모습으로 법회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전북불교회관은 치료비 후원금외에도 한혈증 기부 등 불자들의 작은 정성을 기다리고 있다. (063)277-3497

조동제 전북지사장

순천정원박람회서 초의 스님 일지암 재현

순천정원박람회에서 초의 스님의 일지암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10월 20일까지 순천만에서 열리는 순천정원박람회장 내 '일지암'은 관람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초의 스님의 일지암의 대표적인 차문화 유적지인 해남 대흥사의 '일지암'을 그대로 재현해 냈다.

'일지암'은 우리나라의 다도를 정립한

초의 선사가 1826년부터 40년 동안 머문 다원 암자를 원형으로 재현해 관람객이 다도 체험과 다식 만들기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정원박람회장 내 색다른 공간이다.

또 이곳에서는 다도 및 다례 체험과 함께 고소한 다식을 만들어보고, 시식까지 할 수 있어 최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불교교육원 연광 스님 초청법회

"행복은 마음먹기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광주불교교육원(대표 이순규)은 8월 20일 교육원 강당에서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 초청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 연광 스님은 참가대중들에게 '행복을 꾸르는 그대, 행복을 만들어 가는 그대'라는 주제로 법문했다. 스님은 법회에서 "행복은 마음의 크기에 따라

가오는 것이 차이가 있다"며 "행복이 오면 불행도 같이 오는 것이 세상이 이치이다. 이를 받아들이는 자신의 마음의 문제가 행복을 여는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회에는 이범식 전 이사장, 이순규 박사 등 200여 대중이 운집했다. 광주불교교육원은 연광 스님에 이어 8월 23일 총부 효심사 주지 성담 스님 초청법회를 개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 살린 故차일혁 경무관 공덕비 제막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을 비롯한 대중이 공덕비를 제막하고 있다.

천년고찰 지리산 화엄사를 구한 차일혁 경무관의 공덕을 기리는 공덕비가 화엄사에 세워졌다.

故 차일혁 경무관(1920~1958)은 지난 1951년 6.25전쟁 당시 전북경찰국 제18전투대장으로 임명돼 토벌작전이 진행될 지리산 일대의 화엄사, 천은사, 쌍계사, 금산사, 백양사, 선운사와 덕유산 일대의 사찰 소각 명령을 받았으나 기지를 발휘하여 사찰을 전화(戰火)에서 구한 인물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8년 문화재호국인물로 선정을 했으며, 국가보훈처는 호국의

인물로 선정했으며, 조계종 초대종정 효봉 스님이 1958년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지난 8월 21일 화엄사 박물관 입구에서 진행된 이날 공덕비 제막식에는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을 비롯해 스님들과 차 경무관의 후손인 차길진 법사, 전석중 전남 지방경찰청장, 서기동 구례군수 등 300여 명이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차길진 법사는 경봉 스님 친필 '화엄'과 차일혁 경무관 관련 자료 5점을 화엄사 박물관에 기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불교신도회 암도 스님 초청법회



8월 18일 전북불교신도회는 전북불교회관 4층 법당에서 前교원장 암도 스님을 초청해 법회를 봉행했다.

전북불교신도회(회장 김백호)는 8월 18일 전북불교회관 4층 큰 법당에서 前 교원장 암도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30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암도 스님의 법문을 경청했다.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 회장은 "도전과 혼미의 시대에 전북불교를 우뚝세우기 위해서는 진보적이고 효율적인 실행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모든 사찰들이 전법과 포교 교육의 중심도량으로 나서자"고 말했다.

암도 스님은 법어를 통해 생활 속에서 복을 쌓는 불교실행 활동을 생화불교라고 전제하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가 부처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마음이 변하는 모습을 관찰하여 팔정도를 행해야 한다. 또 계율과 보시를 통해 이웃과 함께 지혜와 복을 지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불교신도회는 지역불교 발전을 염원하며 매월 1회 전국의 선지식을 초청해 정기적으로 법회를 열어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계 세계순례대회 참석 잠정보류

불교계가 9월 28일부터 전주와 김제, 익산, 완주군 일대에서 열리는 세계순례대회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순례대회 불교조직위원회(위원장 보룡)는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의 4대종교 성지를 순례하는 세계순례대회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보룡 스님은 본지와와 만남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지난 8월 6일 세계순례대회 조직위에 공문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9월 28일부터 9박 10일의 일정으로 전주, 익산, 김제, 완주군 일대에서 개최되는 세계순례대회에는 4대종교 성지를 순례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천주교 성

지유주로 순례길로만 이어졌다는 지적이 계속 되었다.

불교 조직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주시의 '6대종교 관광활성화 계획'이 백지화 될 때까지 세계순례대회 참석을 잠정 보류하는 한편 현재 천주교 위주의 순례길도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조직위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세계순례대회 법민화를 위해 필요한 불교조직위원장의 인감증명 등 관련서류 제출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도 8월 20일 전주시의 종교평화행위 파악을 위한 실사에 들어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61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최면학 교수(전)
국제 임상최면전문가(CHT)
공인 심리상담 전문가
한국 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평생교육원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 등에서 최면 특강

KBS, MBC, SBS 외 각종 케이블방송에 300회 이상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자신의 문제해결은 물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 개강 : 9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7회 과정)
-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 제공)
-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전생 요법 :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을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있는지, 원하는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한다.

사주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사주속에 숨겨진 영가보는 법과 심리적인 것 까지 읽을 수 있는 법” 을 배우게 된다.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선화동 364-8(명상센터3층)
042) 255-0734~5